

희망을 가지면 발기부전도 극복

남성에 있어 발기부전은 40세 이상의 약 50%에서 발생하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비뇨기과 외래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성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개인의 행복감, 가족의 안정 및 나아가 사회의 건실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발기부전이라는 질환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질병이다. 발기부전은 이처럼 흔하고 환자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질환이지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상담을 꺼리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은 환자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선택하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비방에 매달려 건강과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대하게 된다. 다음은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사례이다.

남성 40세 이상에서 50% 발생

후배 성형외과 의사의 소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연예인을 소개받았다. 90년대 안방극장에서 주름을 잡았던 J씨였다. 당대 연예계를 주름 잡던 소문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매우 기력이 없어 보였다. “섹스할 마음은 굴뚝같은데, 영 발기가 되지 않아서요. 특별히 병을 앓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을 복용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최근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기본적인 검진과, 성기능 검사를 시작하였다. 일반 혈액검사에서는 모두 정상이었고, 시청각자극 발기유발검사와 약물발기유발검사에서 발기의 강직도와 지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먼저,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중인 약을 최소한 줄일 것을 상의하였다. 같이 온 부인의 얼굴표정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이렇게 고개 숙인 남편을 둔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미어지고, 남편이 아프면 머리가 아

프다고, 아내의 눈에는 이러한 남편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과거에는 방송에만 매달려 살던 남편이 이제는 정반대로 일을 피해 다니고, 밤이면 부인에게 등 돌리고 한숨을 쉬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성기능 장애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남자에게 있어서, 성 능력과 성공! 이것을 둘 다 나이 먹어서도 잘 지켜 나가기란 쉽지 않다. J씨와 몇 차례 면담과, 정신과 의사의 자문결과 수술적 요법인 음경보형물 수술요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J씨 자신도 긍정적이었다.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이란, 발기살인 두 개의 음경해면체에 정상적으로 발기되는 것처럼 만들어진 인공 음경발기살을 삽입하여, 성행위시에 음낭에 있는 펌프를 10회 정도 주물러 음경이 발기되게 하고, 성행위가 다 끝나면, 다시 펌프를 풀어서 발기전 상태로 돌려 놓게 되어 있다. 여러 형태의 음경보형물이 있지만, 3 조각형 음경 보형물은 자연발기에 가장 가깝고, 두께와 길이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성기 크기와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상 생활은 물론 운동 경기에도 불편함이 없다. 대중 목욕탕에서도 타인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다.

수술 후 약 2개월이 지났을까, J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제가 좋은 것은 당연하고,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요즘은 우울증도 없어서 정신과 약도 끊었습니다.” 아주 활기차고, 밝은 목소리였다.

남자들은, 아무튼 성생활이 제대로 돼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구나 싶었다! ㉞

글_ 박천진 강남 J비뇨기과 원장
pcjinhee@hanafos.com